

1979년, 그녀들의 선택 —YH노동조합 신민당사 농성

김원

1. YH노동조합 신민당사 농성에서 유신 체제 붕괴까지

YH노동조합 신민당사 농성이 세간에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1990년대 공전의 히트를 거둔 드라마 <모래시계> 6화에서 묘사된 신민당사 강제 진압 장면이 아닐까 생각한다. 물론 1979년 당시 신민당사에는 주인공 해린 같은 대학생은 없었겠지만, 드라마는 당시 상황을 촌촌하게 그려냈다. 17년 전 『여공 1970, 그녀들의 반역사』 초고를 쓸 때도 YH노동조합은 70년대 민주노조와는 다소 다른 모습이었다. 10여 개에 달하는 민주노조 대부분이 종교 단체와 연계된 데 비해, YH노동조합은 1975년 노조가 결성된 이래 독자적인 노동조합 운영을 해왔으며, 이는 ‘민주 대 어용’이라는 1970년대 한국노총과 종교단체 간의 대립 구도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다.

하지만 1979년 YH노동조합 신민당사 농성은 같은 해 10월 26일 유신 체제의 붕괴라는 ‘정치적 사건’과의 연속성 속에서 주로 의미를 부여받았다. 1979년 갑작스런 유신 체제 붕괴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존재하지만, 단순

화하자면 지배블럭 내부의 균열에 의해 독재가 붕괴되었다는 주장과, 시민 사회 혹은 밑으로부터의 계급투쟁에 의해 해체됐다는 해석이 대표적이다.

한 예를 들면 신민당사 농성을 지난 20년간 가장 중요한 사건이자 유신 체제 붕괴의 ‘정치적 결절점’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녀들의 점거 농성이 경제투쟁이었음을 강조하면서, 가장 정치화된 노동쟁의조차 노동자들이 수동적으로 정치의 장에 투척된 것이라고 평가한다.⁰⁰¹ 동시에 이 농성을 노동문제의 ‘사회화’ 혹은 ‘외부화’의 사례로 파악하며 노동운동, 야당 그리고 재야운동 사이의 연대의 매개로 파악하는 경우도 있다.⁰⁰² 이처럼 점거 투쟁은 노동문제를 정치화시킬 거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투쟁 방식이었다.⁰⁰³ 물론 1979년 당시 ‘외부세력 개입설’ 같은 주장도 존재했다. 유신 정부, 공화당과 유정희, 한국노총, 그리고 보수 언론은 ‘도시산업선교회’의 개입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그렇다면 40년이 지난 2019년, 유신 체제 붕괴라는 사건의 효과에 초점을 맞춘 기존 흐름과 달리, 우리는 그녀들로부터 무엇을 성찰해야 할까? 신민당사 농성은 점거 농성이라는 시점과 그 정치적 파급 효과만으로 국한시킬 수 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물론 조합원들의 농성과 강제해산은 이후 야당 급진화, 경제위기와 조세 저항에 따른 부마항쟁, 그리고 지배블럭 내부의 균열을 야기해 체제 붕괴로 이어졌다. 특히 1980년대 변혁적 노동운동이 1970년대 민주노조운동을 경제주의, 단위사업장 차원의 투쟁 등으로 평가한 것과 달리, 한국전쟁 이후 노동조합 운동이 태동한 이래 거의 유일무이하게 점거농성이 전국적 정치 변동에 영향을 미쳤다. 1980년대 중반, 선도투쟁에 입각한 여러 점거농성 투쟁이 있었지만,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 그 차이의 근저에 밑으로부터 조합원에 기반한 YH노조 점거 농성이 지닌 특성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왜 그녀들은 회사 정상화가 어려울 것을 예상했음에도 ‘반유

신의 공간'인 신민당사로 들어갔을까. 우리는 그녀들의 선택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본 연구는 1979년 신민당사 농성 이전 시기부터 밑으로부터 만들어진 노조의 독특한 작동 방식, 그리고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해 신민당사 농성을 선택했던 조합원들의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2. 70년대 민주노조와 YH

1970년대 민주노조 가운데 하나인 YH노동조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신체제 이후 노동관계법의 변화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유신 체제 수립을 전후하여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법적 제약이 만들어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노동쟁의법, 노동조합법 등이었다.⁰⁰⁴ 1971년 공포된 '국가보위에 대한 특별법'(9조 2항)에 따라 단체행동권은 사실상 금지됐다. 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 존재하던 노동3권을 보류할 수 있는 법률적 규정이 만들어졌고, 노사협의회를 노조와 기능적으로 분리해서 노조의 자율성을 침해했다. 그 외에도 노동쟁의 제기를 총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노동쟁의의 적법성 판정 권한을 행정관청에게 부여해, 노조와 사측 간의 관계는 행정적 지도로 변질되었다. 또한 노동관계특별입법으로 1970년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에 관한 임시특례법, 1971년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만들어졌고 더 나아가 노동문제에 관한 입법 체계로 1973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975년 긴급조치 9호 발동 등 법적-제도적 제약이 생겨남으로써 독립적인 노동조합 활동은 정부와 자본으로부터 매우 심각한 제약을 받았다.⁰⁰⁵ 파업, 태업 등 집단행동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결성조차도 쉽지

않았다. 그 결과, 유신 후반기 노동쟁의는 노조 결성, 임금인상, 휴폐업·해고, 기존 노조 파괴 등 정권의 탄압으로부터 민주노조를 사수하려는 성격이 강화됐다.⁰⁰⁶

성장주의에 입각해 장시간노동과 저임금, 노조 결성의 제약을 강요했던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상급 노조인 한국노총도 노총의 통제 범위 외부의 독립적인 노동조합 결성 및 활동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았다. 이는 한국노총과 교회단체 간의 대립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1960년대까지 도시산업선교회, 가톨릭노동청년회와 한국노총의 관계는 우호적이었다. 그러나 1971년 김진수 사건⁰⁰⁷을 계기로 도시산업선교회는 한국노총이 기층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게 되었다.⁰⁰⁸ 이때부터 양자의 갈등이 본격화됐다. 1970년대 초반 한국노총의 미조직 분야 노동자 비율은 74%에 달했고 도시산업선교회의 노조 조직률이 전체 노조의 10%를 상회하게 되었다. 한국노총은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다.⁰⁰⁹

특히 1975년 이후 종교단체에 대한 비판 방식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보수 교단의 잡지 중심으로 종교단체에 대한 비난이 이뤄졌지만, 1975년을 즈음해서 유신 정부의 비호 아래 노조에 개입하는 종교단체에 대한 선동이 전사회적으로 강화되었다. 1976년 「한국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문서를 통한 산업선교에 대한 최초의 공격이었으며, 한국노총은 현장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이것이 산업선교다」를 대량으로 구입하고 ‘앞으로 종교와 싸워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했다.⁰¹⁰

1966년 만들어진 YH무역은 1970년대 가발경기 호황으로 1970년 수출 실적 100만 불을 달성하는 등 수출 순위 15위의 기업이었다. 1960년대 중국이 핵을 보유하게 되자 미국은 중국산 가발 수입 금지를 취했고, 한국은 가발 대체 수입국으로 등장했다. YH무역도 그 수혜자였다.⁰¹¹ 전체 노동자수가

4,000여 명으로 면목동 경제를 좌우할 정도로 규모가 컸고, 지역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대단했다. 하지만 휴업이 진행되면서 폐업 위기, 공장 이전, 장기휴업으로 인한 생계 문제 등으로 1977년에만 총 700~800여 명의 인원이 감소하는 등 1977년까지 2300여 명이 회사를 떠났다. 1978년 3월 종업원 수는 509명이었고, 1979년 신민당사 농성에 참여한 노동자 수는 총 187명, 기숙사에서 농성 중이던 인원은 50여 명이었다.⁰¹² YH 공장 업무는 총무과, 자재과, 기술과, 개발과, 생산과로 구분되어 있었다. 생산직 노동자들은 모두 생산과에 소속되어 그 밑에 가발부와 봉제부로 나뉘고, 가발부 밑에는 절단반, 정도반, 쌍단침반, 건조반, 재단법, 포스터반, 수제반, 미용반, 포장반 등 11개 반이 있어서 도급제로 운영되었다.⁰¹³

하지만 도급제⁰¹⁴ 등으로 인해 노동 강도가 세서 1975년 당시 이직률이 무척 높았다.⁰¹⁵ 뿐만 아니라 전출감봉, 인권유린 등이 일상화됐다. 수제반이었던 지부장 최순영은 도급제 아래에서 아침 8시에 출근해 저녁 10시에 퇴근하는 14시간 노동을 해내야만 했다.⁰¹⁶ 1975년 노조 결성 초기 기록과 1978년 임금협상 당시 기록을 보면, 양성공 초임이 840원, 본공 초임은 1,000원이었다. 다른 신문 기사에 따르면 임금은 하루 1,200원, 한 달 36,000원이었으며, 반장급의 경우 하루 2,000원, 한 달 60,000원으로 기록되기도 한다.⁰¹⁷ 노조 사무장이던 박태연은 “노예 같은 삶”, “감옥이나 작업장이나 별 차이가 없었다”라고 회고하기도 했다.⁰¹⁸

YH무역에서 상봉천주교회를 매개로 노조 조직화가 시작된 것은 1975년 3월, 건조반 파업을 계기로 했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결성될 무렵 여성 노동자들의 분위기는 당시 한창 인기있던 가수 남진과 나훈아를 둘러싸고 서로 좋아하는 가수가 다르다고 라인 교체를 요구하는 등 의식 수준이 높지 않았다.⁰¹⁹ 초기 섬유노조 조직부장과 대화 과정에서 ‘노조가 여당이나 야당이냐’

라고 물을 정도로 노조에 대한 인식도 낮은 편이었다.⁰²⁰ 건조반은 ‘죽으면 어께가 제일 먼저 썩겠다’는 농담이 돌아다닐 정도로 노동강도가 켜지만, 단순히 쇠막대기에 머리를 마는 기술이 필요 없는 작업으로 여겨져 임금이 낮았다.⁰²¹ 노조 결성을 통한 문제해결을 제안했던 가톨릭노동청년회 김철순의 도움을 받아 3차례에 걸친 시도 끝에 결국 노조가 만들어졌다.⁰²²

이후에도 연장근로 및 퇴직금을 둘러싼 투쟁이 전개됐다. 1975년에는 상여금 지급에서 생산직과 사무직 간의 차별에 반대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해 생산직 노동자에게 50%의 상여금이 최초로 지급되는 성과를 얻었다.⁰²³ 이후 YH 노동자들은 교육, 기숙사 자치와 소그룹 참여, 노조 운영 참여, 그리고 준법투쟁을 통해 노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를 순서대로 살펴보고자 하자.

첫 번째,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조합원들의 변화를 살펴보자. 1975년 노조 결성 초기, 조합원들은 작업 현장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전세방에서 조합원들에게 늘 보고하고 상세하게 설명해주었다. 초기부터 교육에 중점을 두고 조합의 단결을 강화시킨 것이다. 다음으로 등산을 통해 회의 진행법을 교육하고, 1976년에는 새마을운동을 역으로 활용하여 노조교육으로 만들었다. 지부장의 현장 순회도 어렵던 시기에 노조 교육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가요, 노동기본권 등을 새마을교육에 집어넣어 교육 내용을 노조교육으로 변화시켰던 것이다. 이를 통해 조합원 간의 유대가 급격히 강화되었다.⁰²⁴

더 나아가 주된 조합원 및 간부에 대한 각종 교육이 이뤄졌다. 노조는 매년 3회에 걸쳐 조합원 교육을 실시했다. 연초에는 임투 교육, 가을에는 단협 교육, 그리고 겨울에 조합원 전체교육까지 이루어졌다. 조합원 전체 교육은 ‘노조란 무엇인가’, ‘민주적 노조 활동은 무엇인가’, ‘노동운동사’ 등 민주노

조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강의는 짧게 마치고 조합원 각자의 사고와 의견 발표를 주로 하는 식으로 진행됐다.⁰²⁵

이런 교육도 특히 크리스찬아카데미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조직관리, 효율적 소집단 운영, 분반토의, 종합토론 방식으로 진행된 교육은 조직 내 개인이라는 공동체의식을 함양시켰다. 당시 교육에 참여한 인원은 총 1,000여 명에 달했다.⁰²⁶ 노조 사무장이었던 박태연도 노조가 발전하게 된 계기로 ‘아카데미 교육’을 지적한다.⁰²⁷ 아카데미를 매개로 한 조합원 교육과 소집단 운동 강화가 1970년대 다른 민주노조와 YH노조의 차이였다고 할 수 있다.⁰²⁸ 초기에 노조와 아카데미가 연결된 데는 지부장 최순영과 섬유노조 교육부장 표웅삼이 큰 역할을 했다. 표웅삼은 섬유노조 교육을 받으러온 최순영에게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해주었으며, 1975년 5월 24일 섬유노조 YH지부 결성대회 사회를 맡기도 했다.⁰²⁹ 최순영 등 노조 간부들은 당시 아카데미 간사였던 신인령에게 ‘경제사’ 등 체계적인 사회과학 프로그램을 교육받았다. 최소 25명이 불법으로 연행되어 2~7일씩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았던 크리스찬아카데미 사건 당시 연행되었던 반도상사 장현자가 “경제학 공부한 것만 쏙 빼버림”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 프로그램에는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 포함되어있던 것으로 보인다.⁰³⁰ 당시 아카데미 교육이 미친 효과에 대해 최순영은, “얼마를 버느냐가 아닌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었다고 회고했다.⁰³¹

뿐만 아니라 상집 간부, 사무장 등은 아카데미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했으며, 노조의 민주적인 운영에 대한 교육을 받기도 했다.⁰³² 당시 교육은 각 사업장 노조 간부들의 4박 5일간 숙박교육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운동자의 조직 원리, 자세, 효율적 소집단 운영, 구체적 사례 연구와 공동 과제 작업, 대화 시간, 명상, 촛불의식 등으로 공동체의식을 높였다.⁰³³ 이를 통해 그들은

청계피복 노동자들과 노동운동의 상징인 전태일도 알게 되었다.⁰³⁴

1978년 대의원 하기 수련회에서는 크리스찬아카데미 노조교육 간사 신인령을 초청해 ‘민주주의와 노동조합’에 대한 강의와 분반토론을 진행했다.⁰³⁵ 분반토의와 연극 등 노동문제와 사회문제 전반에 대한 논의가 자발적으로 이뤄졌으며, 평가회에서도 정치·사회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당시 소그룹 운영법을 조합원에게 교육했던 신인령이 “하나를 가르쳐주면 4~5개를 실천한다”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그 효과는 대단했다.⁰³⁶ 정상화 투쟁 이전에 조합원들의 변화는 이미 눈에 떨 정도였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1979년 3월, 앞서 본 크리스찬아카데미 사건으로 지부장 최순영이 중앙정보부로 연행되자 노조가 긴급상집회의를 소집해 노조 간부 연행을 노조에 대한 탄압으로 간주하고, ‘지부장석방대책위원회’를 조직해 농성, 침묵시위, 조합원 검은 리본 착용 등을 통해 밑으로부터 조직력을 보여준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⁰³⁷ YH노조가 만들어진 1975년은 종교단체와 연루된 민주노조와 한국노총 간의 대립이 격화된 때였다. 1979년 3월 22일, 정부는 크리스찬아카데미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4월 16일 중앙정보부는 강사 8명을 반공법으로 구속, 강사 외에도 최순영, 이충각, 장현자 등 민주노조 활동가들을 연행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⁰³⁸ 특히 YH노조 신민당사농성 직후 도시산업선교회 등 종교단체에 대한 비난과 조시는 정점에 달했다.

다음으로 기숙사 자치 및 소그룹 활동을 통해 정부와 사측으로부터 자율적인 활동의 공간을 만들어낸 과정이 있었다. YH노조에게 기숙사는 노조 결성 당시 가입원서를 500여 명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었던 기반이자 노조교육의 장으로, 특히 참여형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었다.⁰³⁹ 기숙사 방마다 쪽지로 ‘노조에 대해 알고 싶으면 몇 호실로 와라’는 내용이 전달되었다. 기숙사 식당에 56개조에서 나온 요구를 붙이기도 했다.⁰⁴⁰ 사측은 조합원을 분리하

기 위해 기숙사 재배치를 하고자 했으나 이 역시 뜻대로 이뤄지지 못했다.⁰⁴¹

1978년에는 임금인상을 둘러싼 퇴근 후 조합원 의견조사 및 여론조사가 기숙사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상집위원 전원이 조합원을 10명씩 그룹으로 나눠서 전체 55개 그룹으로 교육을 진행했으며, 다음 날 점심시간에는 평가 회까지 진행했다.⁰⁴²

노조의 또 다른 중심축인 소그룹으로는 상조회(1975년 결성), 한문반(1977년 결성), 녹지중학교(1977년 결성), 동일교회 야학, 합창단, 탈춤반 등이 있었다. 특히 1977년 만들어진 영클럽은 주1회 소그룹 모임, 월1회 야유회, 월1회 교양 강좌, 연4회 역사공부 등을 통해 대의원과 핵심적 조합원을 배출했다.⁰⁴³ 매년 거행된 대의원 하계수련회는 “공순이 잔칫날”이라고 불렸으며, 촛불을 들고 노조를 중심으로 결속력을 강화하는 자리가 되었다.⁰⁴⁴

세 번째로 조합원에 의한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창출을 살펴보자. 유신 시기 민주노조 가운데 소그룹과 대의원 제도 등을 통한 조합의 민주적 운영의 대표적 사례로 원풍모방과 YH무역 노조를 들 수 있다. 특히 YH의 경우, 도시산업선교회나 지식인들의 개입 없이 임단투의 협상 과정, 교육, 대의원모임 등이 활성화됐다. 물론 원풍모방 등 사례에 비해 초기 조합 운영과 임단협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존재했지만, 각종 회의와 조합원 의견 수렴을 통해 ‘자기 정정’을 거치는 과정은 조합원 스스로 민주노조의 대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이 점이 다른 민주노조와 YH가 구분되는 특징이다.⁰⁴⁵ 몇 가지 사례를 들면 아래와 같다.

먼저 민주노조로서 YH 노동조합의 특징은 자체적으로 간부, 조합원들의 활동이 활성화되었다는 점이었다. 전체 조합원이 2000여 명이던 시기 대의원 규모가 200여 명에 이를 정도였다.⁰⁴⁶ 이처럼 조합원들의 노조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산 등산을 하기도 했고,⁰⁴⁷ 1976년에는 다른 지부 대의원

대회에 참석해 회의 진행에 대해 배우는가 하면, 다른 노조 사무실을 방문해 조합원 교육방법, 실무행정 등을 학습했다.⁰⁴⁸ 1977년 여름에는 3박 4일간 야외교육대회를 개최해 소집단 운영 방식, 분반토의, 자기고백, 촌극, 모닥불잔치, 촛불의식 등을 통해 노조의 현재 상황을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집단운동을 전개했다.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서 단결의 중심은 대의원들이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⁰⁴⁹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조합 지도부와 조합원들의 지속적인 준법 투쟁 전개이다. 1975년부터 1979년 8월, 기숙사 농성에 이르기까지 YH노조가 300여 명의 조합원을 유지하고 신민당사 농성을 선택한 데는 답답하리 만큼 조심스러운 노조 운영 방식의 영향이 컸다. 임단협 투쟁, 사측의 휴업 반대 투쟁 등, 다른 노조였다면 이미 사회화·외부화시켰을 사안들에 대해 조합원들은 인내심을 갖고 민주노조의 틀을 유지하면서 농성, 정상조업, 실태조사, 호소문 등을 통해 준법투쟁을 전개했다. 이처럼 YH 노조 활동에서 주목할 것은 도시산업선교회 등 외부 세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동시에 다수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었던 노동조합 운영이었다. 여기에는 바로 직전에 전개된 노동문제의 외부화를 통한 동일방직 노동조합의 무력화 등을 통한 학습효과가 적지않게 작용했다. 몇 가지 사례를 보자.

먼저 1975년 상여금 투쟁을 전개할 때는 노사협의회장 앞에서 중간보고 등 지도부의 투쟁을 조합원이 보호함으로써 전체 조합원의 불안감을 낮췄다.⁰⁵⁰ 다음으로 조합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 외에 1977년 사측의 휴업에 반대하는 투쟁에서도, 조합원들은 하청업체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⁰⁵¹ 사측은 조합원들의 퇴사를 유도하기 위한 만성적인 휴업을 반복했지만, 조합원들은 항의와 정부 탄원서 및 호소문 제출 등 인내심을 갖고 준법투쟁을 전개했다.⁰⁵²

끝으로 YH조합의 민주적 의사소통에서 주목해야 할 제도는 대의원 모임이다. 대의원 모임은 1976년 후반부터 월1회 정례적으로 이루어졌다. 월례 모임을 통해 노조 활동 보고를 청취하고 대의원들 자신의 역할을 준비했다. 더불어 자신을 선출해준 조합원들의 개인생활, 요구 사항을 듣고 노조 활동에 대해 알려주는 일을 자발적으로 수행했다. 특히 이 모임에서 의미 있었던 것은 '5단계 토의방식'이었다. 의장단 4인, 상집위원 21인, 대의원 41인 등으로 이어지는 토의 방식을 통하여 조합원의 참여를 강화하고 조직화에 크게 기여했다.⁰⁵³

이상에서 “밑으로부터 조합원에 기반한 YH 점거농성”을 가능케 했던 노조 내부의 독특한 작동 방식을 살펴보았다. 처음에는 자율적인 민주노조의 필요성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조합원들은 “하나를 가르쳐주면 4~5개를 실천한다”고 평가될 정도로 가시적인 변화를 만들어냈다. 이를 기반으로 기숙사자치, 각종 소그룹 활동을 통해 정부와 사측으로부터 자율적인 활동 공간을 창출한 점, 초기 노동조합 운영에서 시행착오가 존재했지만 각종 회의와 조합원 의견 수렴을 통해 ‘자기 정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조합원 스스로 민주노조의 대의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해냈다. 다시 말하자면 임금인상, 노동조건 개선, 노동자이자 여성으로서 자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민주노조가 필요했으며, 비록 높은 정치의식은 아닐지라도 다시 민주노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사회화·외부화할 수도 있었던 문제에 대해 조합원들은 인내심을 갖고 민주노조의 틀을 유지하면서 농성, 정상조업, 실태조사, 호소문 등을 통해 ‘준법투쟁’을 전개했다. 이처럼 YH노조 활동에서 주목할 것은 도시산업선교회 등 외부 세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동시에 다수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을 운영했다는 점이었다.

3. 최후의 연대

이처럼 1979년 8월 9일 신민당사 농성은 노조 결성 이후 준법투쟁을 중심으로 한 신중한 노동조합 운영과 기층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기반했다. YH노조 지도부와 조합원들은 첫부른 외부 세력과의 연계가 오히려 노동조합 탄압과 조합원 내부 분열을 야기시킨다고 판단하고,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투쟁에서 조합원이 농성과 투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상, 준법투쟁, 교육과 토론 등을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했다.

1979년 8월, 노조의 신민당사 농성이 시작된 원인인 ‘폐업’의 배경부터 살펴보자. 자본 측의 폐업은 1977년 청산공장 설치에서부터 그 ‘징후’가 나타났다. YH무역의 쇠퇴는 1973년 YH해운 설립, 1976년 이후 가발경기 후퇴와 수출대금 미상환으로 은행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는 등 회장 장용호의 무리한 해외투자와 회사 간부들의 원자재와 기계 밀반출 등이 겹쳐서 일어났다. 또한 1977년에는 오리온전자를 인수함으로써 부채가 늘어나 은행 부채는 1974년 6억 3천만 원에서 1977년 31억 7천만 원으로, 그리고 1979년 3월에는 40억 5천만 원이 되었다.⁰⁵⁴ 1977년 6월 첫 휴업 당시 분위기를 보면, 가발 제품을 생산하던 여성을 전부 실밥따기나 단추달기 등 낮은 공정으로 이동시켜 불안정한 작업 분위기를 조성한 뒤 자발적으로 사표를 받았다. 그 뒤 8월에 3일, 5일씩 반복해 휴업이 강행되어 6월에 77명, 7월 205명, 8월 91명, 9월에는 23명이 거리로 내몰렸다. 또 정부 정책에 따라 면목동 공장의 주력인 가발 라인을 옥천 청산공장으로 이전한다고 하자 430명이 사표를 냈고, 11월 장갑부서 전체에 대한 해고통지로 200여 명이 다시 사표를 냈다.⁰⁵⁵ 뿐만 아니라 1977년 대의원대회에서는 사측이 노조가 있어서 회사가 사람을 안 뽑고 하청으로 돌린다는지, 노조를 없애야 오래 일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⁰⁵⁶ 인원 감소가 잇따르자 1978년 11월 29일 경영부실을 안건으로 노사협의를 진행했다. 사측은 2개월간 시간 여유를 주면 회사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고 정상화가 어려울 경우 다른 기업으로 양도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제안을 했고, 노조는 이를 수용했다.⁰⁵⁷

1979년 3월 30일 사측은 급기야 일방적으로 폐업 공고를 발했다. 노조는 긴급상임집행위원회를 열어 폐업조치에 승복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정부는 장용호를 소환할 것, 조흥은행은 기업 재건을 책임질 것을 요구하면서 정상화까지 조합원의 투쟁을 결의했다. 4월 17일, 기업양도, 원리금 상환 연기 등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 있었지만 노동청의 중재로 일단 사측은 폐업을 철회했다. 하지만 1979년 4월 30일, 사측은 YH해운 등의 부채를 이유로 폐업을 발표했고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은 거래정지를 통보했다. 노사공동대책을 논의했지만 역시 진전은 없었다.⁰⁵⁸ 노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5월 28일에 개최된 노사협에서 사측은 4월 17일 폐업 철회의 책임을 이를 중재했던 노동청에게 전가했고, 7월 19일 노동청장과의 면담에서도 상황 변화에 따라 폐업이 불가피하다는 답변만이 돌아왔다.⁰⁵⁹

이 시점에 YH노조는 교회단체 등 외부와 연대하기로 결정한다.⁰⁶⁰ 폐업이 이뤄진 직후인 1979년 4월, 노조는 신민당 인권위원회에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신민당은 이를 거부했다.⁰⁶¹ 이처럼 초기 신민당은 노조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 흥미로운 점은, 8월 9일 문동환, 고은, 이문영 등 재야 남성 지식인들이 김영삼 총재에게 ‘공장 폐업 문제로 여러 번 관계당국에 호소하던 YH무역 조합원들이 사측의 일방적 폐업 조치로 기숙사에서 쫓겨나게 되어 신민당사로 찾아가는 중이니, 김 총재가 당국에 해결책을 촉구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서 신민당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사실이다.⁰⁶² 이런 태도 변화는 1978년 12월 10대 총선에서 신민당이 1.1% 차이로 공

화당에 승리한 뒤, 이듬해 5월 30일 김영삼이 총재로 당선되고 “이제 민주주의는 개막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새벽이 돌아왔습니다. 아무리 새벽을 알리는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민주주의의 새벽은 오고 있습니다”라는 유명한 수락 연설을 하면서⁰⁶³ 선명야당을 내세우며 재야 세력과 연대의 폭을 넓힐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⁰⁶⁴ YH노조가 민주노조의 대의를 야당 당사 농성을 통해 널리 알릴 필요가 있었던 만큼, 유신 시기 제대로 된 반유신 투쟁을 전개하지 못했던 신민당의 입장에서조차 여성 노동자들이 필요했을 것이다.⁰⁶⁵

1977년부터 시작된 회사 정상화 투쟁 과정에서 다수가 회사를 퇴직했지만, 조합원들은 민주노조의 대의에 호응했다. 이는 YH노조의 투쟁이 회사 정상화를 위한 투쟁인 동시에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조라는 조직을 위한 투쟁이기도 했기 때문이었다. 긴 농성 과정에서 특징적이었던 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조합원들의 참여 유도다. 폐업 직후인 1979년 3월 31일, 조합은 회사 정상화가 장기적인 투쟁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전체 조합원을 52개 조로 나누어 오전에는 절대 침묵, 오후에는 그룹별 노래자랑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구체적으로 조합원 교육, 개사곡 부르기, 노래자랑, 그리고 재무부, 상공부, 보사부, 청와대 민원 상담실에 협조 공문 발송과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조합원의 불안감을 약화시키고자 했다.⁰⁶⁶ 사측, 조흥은행, 노동청 모두 정상화 문제에 책임을 지려 하지 않자 4월 9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한국노총 산하 17개 산별노조, 각 지부, 분회, 정당, 신문사, 방송국, 종교단체 등 500여 곳에 우편으로 결의문과 호소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섭외부도 정당과 정부 방문을 요청했다.⁰⁶⁷ 농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김경숙의 기록을 보면 노조와 자신을 일체화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상화 아니면 죽음이다라는 확고한 신념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문제로 다가왔다. 무엇보다 경숙은 자신이 몸담았던 작업장에서 더는 쫓겨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뒤늦게 알게된 노동조합은 자신의 분신과 같았다.”⁰⁶⁸

다음으로, 농성의 장기화에 대한 체계적 준비와 지속적 준법 투쟁을 기반으로 한 참여 유도를 들 수 있다. 노조 지도부와 조합원들은 투쟁이 쉽게 마무리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체계적인 준비에 돌입한다. 4월 12일, 노조는 정상화 대책위원회를 총괄부, 섭외부, 인원관리부, 의료부, 봉사부, 진행부 등 농성 부서로 편성했다. 더 나아가 체계적인 농성 진행을 위해 조합원을 10~20명 단위의 20개조로 편성하여 장기투쟁에 대비하기 위해 의약품, 빵, 생리대, 스치로폼 및 구호와 플랜카드 등을 준비했다. 4월 14일에 개최된 농성장 총회에서는 남성들조차 농성에 참여하기 시작했다.⁰⁶⁹

사측과 조흥은행이 회사 정상화에 소극적임에도 노조는 지속적인 준법 투쟁으로 조합원의 참여를 유인했다. 4월 13일, 긴급조합원 총회는 정상화에 대한 사측 답변을 듣기 전까지 무기한 농성을 결의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노조 섭외부의 끈질긴 노력으로 12일부터 각 언론기관에서 농성에 대한 사실 보도가 이뤄지자 조합원들은 동료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다. 조합에서는 뉴스 내용을 녹음해 조합원들에게 들려주면서 농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했다.⁰⁷⁰

그러나 농성 시작 날부터 태능서에서 지부장을 연행하려고 하는 등 위협을 가하다가 20여 명의 기동대를 포함, 사복형사 등 120여 명이 농성장에 진입해 2~3명씩 조를 짜서 조합원들을 1명씩 강제로 끌어내고자 했다. 조합원들이 저항하자 구둣발로 구타하고, 머리채를 잡거나 젖가슴을 만져 떨어지게 해 강제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150여 명의 농성자가 부상을 입었다.⁰⁷¹

그럼에도 조합은 4월 14일 농성장에서 총회를 속개하고 체계적인 농성을 위해 조합원들을 10~20명씩 나누어 20개조로 만들고 각 조마다 지도할 대의원을 배치했다. 각 조는 투쟁팀, 파도팀, 한마음팀, 정상화팀 등 이름을 지어 조합원들의 소속감을 높였다.⁰⁷²

1979년 4월 30일, 여전히 정상화의 가능성은 보이지 않았지만 노조는 다시 긴급상집회의를 열어 각계에 호소문을 발송하기로 했고, 노동청을 찾아가 근로감독관과 면담했지만 긍정적인 답변은 듣지 못했다.⁰⁷³ 그럼에도 노조는 다시 5월 9일 결의문과 호소문을 각계에 보내고 여러 관계부처를 방문했지만 5월 28일 노사협의를 다시 결렬되고 만다.⁰⁷⁴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YH노조는 사측과 극단적인 투쟁을 피하고, 회사 정상화 문제가 사회문제로 불거지는 흐름과 거리를 두고자 부단히 노력했다.⁰⁷⁵ 이는 앞서 본 것처럼 장기화될 농성을 준비하기 위한 내부 조직 구성, 협조공문 발송, 관계부처 방문, 언론 홍보 등의 형태였다.

1) 농성 개시와 노조의 선택

8월에 접어들어 287명 조합원은 “정상화 아니면 죽음이다”, “생존권을 보장하라”, “정부 당국은 장용호를 즉시 소환하라” 등을 외치며 퇴근 후 4시간 준법농성을 시작했다. 농성장에서 고향에 편지 쓰기를 하던 조합원들은 심지어 혈서를 쓰기도 했다.⁰⁷⁶ 의약품, 생리대 등 민주노조와 인권단체들의 지원이 이어졌고 연대가 점차 확대되어 농성 분위기가 좋아졌다.⁰⁷⁷ 하지만 경찰의 강제해산에 대비해 조합원들이 운동화를 신고 옷을 입은 채 잠자리에서 정도로 상황은 엄중했다.⁰⁷⁸

마침내 8월 6일 사측이 일방적 폐업공고를 하게 된 상황에서 노조는 2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다. 하나는 민주노조가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 민주노조의 대의를 지켜야 한다는 선택이었다. 다른 하나는 협상을 통해 후일을 도모하지는 의견이었다. 이 가운데 80% 이상의 조합원들이 선택한 것은 전자였다. 노조 간부들은 이 투쟁이 “지구전”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이를 통해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했다. 폐업 당시 상황에 대해 사무장 박태연은, “더 이상 공장은 안하겠구나”라고 판단하면서도, “민주노조를 깨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는 심정으로 농성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⁰⁷⁹ 비록 폐업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지만 농성을 역사적 의무로 인식했던 것이다.⁰⁸⁰

물론 조합 활동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사측과의 투쟁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다. 1975년 상여금 투쟁 때도, 조합 간부의 말은 옳지만 문책이 두렵다는 조합원들도 존재했다. 그러나 결국 축적된 차별에 대한 불만은 아침조희와 잔업의 거부라는 결단으로 이어졌다. 청산공장 이전 시기 정부 정책에 반대한 것에 대한 두려움도 조합원들 사이에 공존했다.⁰⁸¹

8월 6일 폐업공고를 낸 직후에도 조합원들 사이에는 불안과 균열이 존재했다. 하지만 사무장 박태연의 분신 시도로 조합원은 다시 결집하기 시작했다. 그 직후 대책회의는 농성 장소를 기숙사로 이동할 것을 결정한다. 문제를 사회화시키지 않으면서 다수 조합원의 단결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⁰⁸² 회사 정상화 투쟁을 통해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정부에 각인시킬 수 있다면 다시 민주적 노동조합을 해산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남은 민주적 노동조합을 지키는 데 기여하는 일이라고 생각한 조합원들도 결국 여기에 동참했던 것이다.

폐업 이후 기숙사에서 농성을 진행하면서 YH노조는 최후로 종교단체 및 재야단체와 연대를 선택했다. 이미 폐업 직후 노조는 정부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도시산업선교회와 가톨릭노동청년회에는 조합 자체의 힘으로

더 이상 해결이 어려운 최종적 단계에 도움을 청하기로 결의한 바 있었다.⁰⁸³ 이에 8월 6일 부지부장 권순갑을 중심으로 섭외부가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 도시산업선교회에 지원 요청을 했고, 이틀 뒤인 8월 8일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 임시실행위원회가 열려 이들에 대한 지원이 결정되었다. 서경석 등은 이날 밤 농성장을 방문해 농성장 이동을 제안한다. 제2의 농성장 소로는 조흥은행, 미대사관, 신민당 등이 논의되었는데 그 과급력이라는 면에서는 신민당이 적당하다는 제안이었다. 이제 선택은 조합원들에게 달렸다.⁰⁸⁴ 8일 밤, 경찰의 강제해산 소문이 돌자 기숙사 정문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몽둥이, 비상금, 운동화 등을 준비한 조합원들은 옷을 입은 채 잠자리에 들었다.

새벽 4시 1차 강제해산 소식이 들리자 비상대의원대회가 열렸다. 미리 짜여진 5명을 한 팀으로 한 소집단을 기본으로 새벽 눈숙임 농성조와 신민당사 이동조가 나뉘었고, 각 팀에게 차비를 분배해 2분 간격으로 한 팀씩 기숙사에서 빠져나가기로 정했다. 제2의 농성장소를 신민당사로 정한 뒤 사내 농성장에 50명을 남기고 농성장에서 부르던 노래를 스피커로 켜둔 채 오전 5시 30분부터 신민당사로 향했다. 회사 정문을 나가다가 집합 장소가 신민당사라는 것이 발각될 것을 대비해 최종 목적지는 팀장들에게만 언질을 주었다. 신민당사 부근에 도착한 뒤에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음식점과 다방이 있는 건물을 대기 장소로 삼았다.⁰⁸⁵

2) 최후의 연대

마침내 8월 9일, YH조합원 170명은 신민당사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조합원들은 “정상화 아니면 죽음이다”라고 쓰여진 머리띠를 두르고 “우리를 나가라면 어디로 나가란 말이냐”, “배고파 못살겠다 먹을 것을 달라”는 플래카

드를 걸었다. 8월 9일, 긴급상집회의가 12시 정오에 열렸다.⁰⁸⁶ 회의에서는 신민당사농성으로 사건이 확대되었지만 노조가 손해 볼 것은 없다고 판단했다.

오후 1시 30분경 노조 대표들은 총재실에서 신민당 의원들과 협의했다. 박한상 의원은 이만하면 사건을 알렸고 당의 업무가 많아 이 문제에만 매달릴 수 없으며 재정 문제로 식비 부담이 크다는 등의 이유로 조합원들을 회사로 돌려보내려고 설득했다.⁰⁸⁷ 하지만 노조는 정상화 확답을 얻기 전에는 나갈 수 없다고 했고, 신민당도 더 이상 설득하진 않았다.

이런 와중에 석간신문에 자신들의 모습이 나온 것을 보자 조합원들의 표정이 밝아졌다. 그녀들은 삼삼오오 모여 신문을 나눠 보고 웃음을 지으며 문제가 곧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을 지니기도 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민주노조 각 지부,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 등에서 빵과 떡, 음료수와 기부금 등을 들고 방문했고 조합원들과 밤을 새기도 하는 등 연대가 확장됐다.

농성 대오를 묶어세우기 위해 노조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우선 대오의 행동 통일과 개인행동을 막기 위해 ‘탐’을 꾸리고 ‘탐장’을 세워 노조를 중심으로 농성을 이끌어 가고자 했다. 그 외 여러 문화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도 했다. 〈조개껍질 묶어〉, 〈무식한 기동대〉, 〈목화밭〉, 〈잊지는 말아야지〉 등 ‘개사곡’⁰⁸⁸ 등을 부르기도 했는데, 박태연은 “조직차장(김경숙-인용재)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건데, 진주난봉가를 부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단히 우렁차게 부르고 씩씩하게 부르고 노래를 잘 불러요. 사람들이 대단히 즐거워했고 기뻐다고 그럴까”라고 기억한다. 〈진주난봉가〉는 평소 김경숙이 자주 부르던 노래로 조합원들이 추임새를 넣어주고 젓가락 장단을 치며 즐겼던 곡이었다. 신민당사 농성이라는 긴장된 상황에서 잠시 조합원들의 긴장을 풀어준 순간이었다.⁰⁸⁹

조합원들이 신민당사 농성에 적극 참여하는 와중에도, 불안감과 함께 신민당사 점거라는 선택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동시에 커져갔다. 노조 지도부와 조합원들은 회사 정상화 문제가 이렇게 커질 것까지 예상하진 못했을 것이다. 신민당사에 와서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보사부장관, 노동청장은 나타나지 않았고 시경과 마포서는 신민당이 여성 노동자들을 볼모로 인질극을 벌인다고 다그치기도 했다.⁰⁹⁰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처럼 밤 10시에 열린 팀장 회의에서는 “조합원의 적극적 협력”이 강조되었다.

이런 와중에도 조합원들의 단결을 강화시킨 계기들이 발생했다. 10일 오전, 여의도에서 시위를 하던 용달차 2,000대와 해태제과 조합원 2,000여 명이 하루 밤만 농성을 끝해주면 신민당사 농성에 가세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⁰⁹¹ 또한 신민당사 농성을 위해 조합원들과 연대했던 이문영, 고은 등이 구속되었다. 조합원들은 그들의 희생에 대해 미안한 감정을 느끼면서도, 해결이 안되서 건물에서 떨어져 죽으나 굶어 죽으나 매한가지라고 투쟁을 새삼 다짐했다.⁰⁹² 또한 8월 10일 신민당 사회노동국장이 할복을 시도하자, 조합원들은 자신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을 다졌다.⁰⁹³

8월 10일 저녁, 경찰이 강제해산을 시도할 거라는 소식이 퍼지고 당사 주변에 사복경찰들이 배치되기 시작하자 조합원들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비공개 긴급상집회의가 90분간 개최되어 “목숨을 버려서라도 노동자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고 결의했다. 상집은 최후의 한 사람까지 죽음으로 항쟁할 것을 확인하고, 창문과 문을 지키며 결사항쟁 의사를 보여줄 것, 침입 시 사이다병을 들고 폭력에 대항할 것 등의 실천 방법을 제기했다.⁰⁹⁴ 이에 조합원들도 상집과 뜻과 행동을 같이할 것을 결의했다.

마침내 사무장의 사회로 ‘종결대회’가 열렸다. 조합원들은 민주노조의

상징인 전태일과 순직 노동자에 대한 묵념을 먼저 올렸다. 뒤이어 고향의 부모형제를 향해 마지막 인사를 올리자 조합원들 사이에서 울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순주 부지부장과 김경숙 상집위원이 결의문을 낭독하자 농성장은 눈물로 가득했다. 동생들의 학비, 부모님의 약값은 누가 댈 것인가, 이렇게 약자는 당해야만 하나요, 우리는 여기서 죽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까 등 구호를 외치는 조합원들을 지켜보던 국회의원, 기자들도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었다.⁰⁹⁵

당시에 종결대회에서는 현재 경제 파탄이 정부 정책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히고, 조합원들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죽음으로 싸울 것을 결의했다. 이처럼 종결대회는 눈물이나 불안으로 채워진 시간은 아니었다. 종결대회 당시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미국 노동운동의 불씨, 전태일의 분신, 노동조합 사수를 위한 동일방직의 투쟁, 그리고 인간다운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갔고, 몸으로 이러한 노동조합의 가치를 지켜내야 한다는 결의가 단단했다. 사무장 박태연은 종결대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기억하고 있다.

그대회를 하면서 우리 회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다 했어요 미국 노동운동 그런 얘기도 하고 전태일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우리 나라에 노동자들이 이렇게 비인간적으로 노예 취급 당하면서 사는 거는 앞에 우리가 여기서(신민당사-인용자) 두 손 들고 나가면 ‘니네 얼마 못했지’ 이렇게 하고는, 이런 악법,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여러 가지 악법은 절대로 고쳐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고쳐내고 또 경종을 울리고,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노동자도 이렇게 한 사람 인간으로 살고 싶다는 것을 폭로해내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육탄으로 해낼 수밖에 없다, 몸으로 해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다 하구요. 그래서 막 마지막에 고향을 향

해서 부모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인사도 하구요....⁰⁹⁶

종결대회를 마친 뒤 조합원들은 감정이 북받쳐 일제히 음료수 병을 깨어 들고 농성장 창문에 매달려 신민당과 노조 지도부를 비난하거나 빈 병을 던지기도 했다. 흥분된 분위기를 가라앉히려려고 노조 간부들이 나섰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 와중에 8명의 조합원들이 실신해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⁰⁹⁷ 조합원들이 이렇게 흥분한 것은 오랜 농성에 따른 신체적 문제 뿐만 아니라, 기숙사 농성 당시 기동대에게 진압 당했던 공포감이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⁰⁹⁸ 조합원들의 흥분된 상황을 사무장 박태연은 다음과 같이 기억한다. “조합원들이 너무나 화가 난 데다가 흥분을 해서 창문에 매달려 한꺼번에 소리를 지르니까 김영삼을 비롯하여 다들 놀라서 올라와 뜯어말리고 난리가 났어요. 나도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구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구나 싶었지.”⁰⁹⁹ 결국 신민당 총재 김영삼이 야당 당사를 경찰이 진압한 역사가 없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설득하자 조합원들은 진정하고 잠자리에 들었다.¹⁰⁰

그러나 11일 새벽 1시 58분경, 박한상 사무총장에게 경찰 투입 통보 전화가 온 시점에 자동차 크랙션 소리가 길게 3회 울리면서 시경 제3기동대 특수무술경관인 1,000여 명의 정사복 경찰관이 당사에 밀어닥쳤다. 101작전이 시작된 것이다.¹⁰¹ 당시 “심야의 기습, 울부짖는 여공들”이라는 제목의 주요 일간지 기사를 보면, 집단투신을 대비해 당사 밑엔 매트리스가 깔렸고, 10여분 만에 조합원들이 끌어내졌다고 한다.¹⁰² 경찰 4명이 여성 노동자 1명을 끌고 나와서 그녀들은 저항할 방법조차 없었다.¹⁰³ 경찰은 강당, 2층 총재실, 기자실 등에 난입해 신민당원, 국회의원, 기자들에게 구타를 가했으며 김영삼은 사복경찰에게 양쪽 팔이 끼인 채, “박정희가 이렇게 시키더냐, 너희 놈들

망할 날이 멀지 않았다”며 절규했다.¹⁰⁴

이처럼 23분 만에 마무리된 강제진압 101작전을 지시했던 인물은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였다.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당시 고건 정무 제2수석은 안전 관계로 병력 투입이 곤란하다고 했지만, 김재규는 모든 것은 준비되어 있고 그대로 두면 여공들이 자해하거나 투신자살할지도 모르니 해산을 연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¹⁰⁵ 정부 측은 불가피한 ‘여공들에 대한 보호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신속처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¹⁰⁶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 간부 김경숙이 사망했다. 경찰은 이순구 시경국장의 발표를 통해 8월 11일 최초로 김경숙이 자해로 병원 이송 도중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틀 뒤인 8월 13일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를 근거로 진압이 시작된 새벽 2시 이전인 1시 30분경에 추락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농성 진압 직전까지 김경숙의 모습을 본 목격자의 증언으로 사인의 진실은 정확하게 규명되지 못했다.¹⁰⁷ 8월 13일, 가족과 경찰, 사측 관계자만이 참석한 가운데 그녀의 장례식이 치러지고 화장되었다.¹⁰⁸

당사에서 해산된 조합원들은 서울시내 7개 경찰서로 분산수용되어 ‘주동자가 누구냐’는 조사를 받으며 구타를 당했고 교육선전부장은 물고문을 받기도 했다. 12일 조사를 마친 뒤 YH 본사로 이동해 현관의 ‘퇴직금 지급소’에서 월급과 퇴직금을 받을 것을 강요받았다. 조합원들은 수령을 거부했지만 억지로 영수증에 지문을 찍도록 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회사가 아직도 우리를 속이려 한다며 퇴직금 수령을 거부하고 노동청이 배포한 구직원서도 찢어버렸다. 이후 233명의 조합원들은 기숙사에서 개인 소지품을 꾸러 다시 경찰서별로 흩어져 이튿날인 13일 출신지역별로 5개 지구로 나뉘어서 경찰이 준비한 버스에 태워져 고향으로 보내졌다.¹⁰⁹ 이처럼 강제해산되어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진 것으로 농성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YH노조 조합

원이었다는 이유로 취업이 어려워지고, 취업을 했다가 다시 해고되는 등 조합원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다.¹¹⁰

4. 1979년, 그녀들의 선택

1979년 8월 신민당사 농성이 지닌 의미는 노동운동의 선택에서 시작된 권위주의 체제의 붕괴라는 점이다. 1960년 4·19 이후 교원노조, 1980년 서울의 봄 시기 노동쟁의, 그리고 1987년 노동자대투쟁 모두 직전 시기 전개된 정치적 자유화의 결과가 노동운동의 활성화로 이어진 사례였다. 반면 1979년 신민당사 농성은 조직된 노동조합의 적극적 선택에 의해 권위주의 체제의 붕괴가 야기되었다. 또 한 가지, 1980년 서울의 봄 시기 일부 민주노조들이 조직보존 논리에 갇혀 적극적인 투쟁을 회피한 것과 달리, YH노조는 민주노조의 정당성을 확산시키기 위해 신민당사 농성을 선택했다.

물론 신민당사 점거농성은 강제로 진압되었고 여성 노동자들은 뺨뺨이 흩어졌으며 회사 정상화는 이뤄지지 못했다. 노조 지도부는 회사 정상화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조합원들도 어느 시점부터 감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녀들은 최초의 야당 당사 점거농성이라는 선택의 결과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다. 정상화 문제가 사회화되는 시간부터 그녀들의 이마에 ‘공순이’라는 멍에와 함께 빨갱이라는 ‘빨간딱지’가 붙을 것을 상상하기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 폐업 이후 밀린 월급과 퇴직금 봉투를 받고 다른 공장에 재취업하기도 쉽지 않았다.

그들이 공장으로 다시 돌아가기가 거의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우리를 나가라면 어디로 간단 말이냐”, “먹을 것을 달라”, “정상화 아니면 죽음을”이

라고 외친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폐업 이전 잦은 휴업과 공장 이전 등으로 회사를 떠난 여성들은 YH 출신이라는 이유로 재취업이 쉽지 않았다. 정의부장 권순갑은 “처음에는 일 잘하겠다 하고 받아줘요. 이틀 지나니까 조용히 부르더니 아무것도 안 물을 테니까 그냥 나가라. 그럼 거기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나와야지”라고 당시를 기억한다.¹¹¹

근처 뚝방의 사창가에 YH 출신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었다. 1977년 폐업 공고가 붙은 지 사흘 만에 430명이 집단 사표를 낸 뒤 새로운 직장을 다니다가 노조가 있는 회사 출신이어서 취업이 안되거나 휴업소로 빠졌다고 기록되었으며,¹¹² 같은 시기 김경숙의 기록에도 버스 안내양, 흥등가 등 동료들의 소식이 기록되어 있다.¹¹³ 노조 결성을 지원했던 가톨릭노동청년회 이철순의 조사에 따르면이라도 70%에 가까운 뚝방 성매매 여성이 YH에서 홀러들 어왔다고 한다.¹¹⁴ 점거농성에 들어가며 그녀들이 발표한 ‘호소문’에는 “거리에 내쫓긴” “저희를 살려주세요”라는 절박한 문구가 들어 있었다. 공장을 그만두고 사창가로 내몰려 거리의 여성이 된 동료들의 운명을 조합원들은 알고 있었다.

유신 시기 산업체특별학교를 통해 유신 체제는 여성 노동자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러나 폐업 과정에서 그녀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회사, 노동청, 조흥은행 누구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았다. 그녀들은 ‘호소문’에 “냉대한 사회”와 그녀들에 대한 “멸시”를 분명하게 새겨놓았다. 그녀들은 폐업의 원인을 제공한 장용호를 소환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노동청은 ‘자본주의사회에서 돈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을 어찌 할 수 없다’는 식으로 그녀들을 배신한다. 그래서 조합원들은 그녀들을 거리로 내몬 책임을 정부에 묻기 위해 점거농성을 택했다.

농성에 참여한 230명의 조합원들은 1975년 노조 결성 직전까지 노조가

무엇인지조차 몰랐지만, 소집단운동을 통해 그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시측은 그녀들의 생계를 지탱하는 임금을 용돈 정도로 여겼다. YH무역 노사회의록(1977. 3. 13)을 보면 노동자의 임금을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는 용돈 처럼 생각하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김 상무: 적자의 원인이 경영부실에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영자가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할려고 노력은 하지만 안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박 사무장: 그래서 그 손실을 노동자의 임금에서 메꾸려 하십니까?

김 상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돈이 없는데 자식의 용돈을 올려줄 수 있습니까?

권 쟁의부장: 아니 어떻게 당장 먹고 살 생계비를 용돈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¹¹⁵

하지만 조합원들은 크리스찬아카데미 교육, 소모임 활동 등을 통해 ‘한 개를 알려주면 5개를 실천하는’ 존재로 변해갔다. “밑으로부터 조합원에 기반한 YH 점거농성”이 가능했던 노조 내부의 독특한 작동 방식은, 시측과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민주노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던 조합원들의 가시적 변화에 기반한 것이었다. 기숙사 자치, 각종 소그룹 활동을 통해 정부와 시측으로부터 자율적인 활동 공간을 창출한 점, 초기 노동조합 운영에서 시행착오가 존재했지만 각종 회의와 조합원 의견 수렴을 통해 ‘자기정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조합원 스스로 민주노조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한 점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노조 결성 이후 조합원들은 임금인상, 노동조건 개선 등을 체험하며 노동자이자 여성으로서 자치를 지키기 위해서

는 민주노조가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고, 비록 높은 정치의식은 아닐지 몰라도 다시 민주노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사회화·외부화시켰을 수도 있던 회사 정상화 문제에 대해 조합원들은 인내심을 갖고 농성, 정상조업, 실태조사, 호소문 등을 통해 ‘준법투쟁’을 전개했다. YH노조 활동에서 주목할 것은 도시산업선교회 등 외부 세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동시에 다수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꾸려갔던 노동조합 운영이었다.

이와 같이 1979년 8월, YH 여성 노동자들의 점거농성은 유신 붕괴로 가는 정치적 촉매제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긴 기억이다. 유신 체제가 붕괴되고 80년 광주민중항쟁을 거치며 변혁적 노동운동을 주창한 그룹은 1970년대 여성 노동자들이 주도했던 민주노조운동을 결혼을 앞둔 여성 노동자가 중심이 된 경제주의, 단사 중심 운동이라고 비판하고 의미를 폄하했다.¹¹⁶ 하지만 정작 80년대 변혁적 노동운동이 선도투쟁이라는 이름으로 전개했던 투쟁은 번번이 실패로 마무리됐다. 조합원 없는 농성으로 반복된 80년대 점거 농성과 달리,¹¹⁷ YH조합원들은 거리로 내몰리고 경찰에 의해 강제로 진압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도 농성을 선택했다.

휴업이 장기화되며 다수가 정상화를 포기하는 가운데 장기농성을 준비했던 과정은 무엇보다 체계적 준비와 지속적 준법 투쟁을 기반으로 한 조합원들의 참여 유도로 가능했다. 폐업 이후 조합원들은 회사 정상화가 장기적인 투쟁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 팀을 구성해 약품, 장비, 플랜카드 등을 준비했다. 그 과정에서 YH 농성이 미디어에 보도되자 성취감을 얻기도 했다. 이 과정은 노조와 조합원 자신을 일체화시키는 것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더불어 80% 이상의 조합원들이 노조를 지키고자 생각했음을 8월 10일 종결대회의 기억으로 추측할 수 있다. 종결대회는 두려움과

공포의 공간만은 아니었다. 조합원들은 미국 노동운동의 불씨, 전태일의 분신, 동일방직의 투쟁, 그리고 인간다운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다. 그녀들이 민주노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농성을 택한 이유는 오랜 노예 취급에 대한 분노, 신민당사에서 백기를 들고 투항했을 때의 부끄러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둘러싼 노동악법을 고치고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살고 싶다는 바람 등이었을 것이다.

점거농성이 일어난 지 40년이 지난 2019년, 이 사건을 통해 돌아봐야 할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두려움과 공포에도 불구하고 신민당사로 향했던 여성들의 선택이다. 1979년 8월 9일 석간신문에 실린 농성 장면을 보며 삼삼오오 모여 미소를 짓는 그녀들의 모습이 찍힌 한 장의 사진은 노동운동사에서 기록해야 할 빛나는 성좌일 것이다.¹¹⁸ 歴

김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사회과학부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 현대사, 구술사를 전공했으며 최근의 관심 주제는 동아시아에서 기억을 둘러싼 문제이다. 대표논저로 『여공 1970, 그녀들의 반역사』, 『87년 6월 항쟁』, 『박정희 시대의 유령들—기억, 사건 그리고 정치』, 그리고 『밀항, 국경 그리고 국적—손진두 사건을 중심으로』, 『국가와 마이너리티—상기하는 방법을 생각하며』, 『1970년대 미디어의 재일조선인 재현 양상—대중매체를 통해 드러난 재일동포 모국방문사업 재현 양상을 중심으로』 등이 있다.

참고문헌

- 최순영 녹취록,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소장(자료번호: 324-37), 면담자 오유석, 면담일자 2002년 8월.
- 박태연 녹취록,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소장(자료번호: 123-149), 면담자 오유석, 면담일자 2002년 10월.
- 구해근, 『한국노동계급의 형성』, 창작과비평, 2002.
- 김영삼, 『김영삼 회고록 2』, 백산서당, 2000.
- 김원, 『여공 1970, 그녀들의 반역사』, 이매진, 2005.
- 박영희, 『김경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3.
- 박민나 편, 『가시절망 위의 넝쿨장미—여성 노동운동가 8명의 이야기』, 지식의날개, 2005.
- 이원보, 『한국노동운동사 5』, 지식마당, 2004.
- 장숙경, 『산업선교, 그리고 70년대 노동운동』, 선인, 2013.
- 장현자, 『그때 우리들은』, 한울사, 2002.
- 전와이에이치노동조합, 『YH노동조합사』, 形成社, 1984.
- 최장집, 『한국의 노동운동과 국가』, 열음사, 1988.
- 한국기독교인권위원회, 『1970년대 민주화운동 IV』, 1986.
- 배지영, 「가슴에 남은 사람: 최순영 YH노조 지부장—열아홉 노동자에서 지역운동가로」, 『노동사회』 62, 2002.
- 서아현, 「한국 민주화운동 과정의 교차적 연대—다사건 분석을 통한 YH사건의 비판적 재구성」, 성공회대학 사회학과대학원 석사논문, 2019.
- 유경순, 「1970~1980년대 노동자 저항방식—파업투쟁과 점거투쟁을 중심으로」, 『역사문제 연구』 29권, 2013.
- 이종욱, 「YH여공 농성 사건」, 『신동아』 1985년 6월호.
- 임송자, 「1970년대 도시산업선교회와 한국노총의 갈등·대립」, 『史林』 35, 2010.
- 최순영, 「그때 그 자리: 70년대 말 노동운동의 외침—YH 최순영」, 『기억과 전망』 3, 2003.
- 〈KBS 인물현대사: 여공, 유신을 몰아내다—YH 사건 김경숙〉, 2005년 2월 4일 방송.

- 001 최장집, 『한국의 노동운동과 국가』, 열음사, 1988, 282~290쪽.
- 002 구해근, 『한국노동계급의 형성』, 창작과비평, 2002, 138~139쪽.
- 003 유경순, 「1970~1980년대 노동자 저항방식—파업투쟁과 점거투쟁을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29권, 2013, 324쪽.
- 004 서아현, 「한국 민주화운동 과정의 교차적 연대—다사건 분석을 통한 YH사건의 비판적 재구성」, 성공회대학 사회학과대학원 석사논문, 2019, 45쪽.
- 005 유경순, 앞의 글, 327~328쪽.
- 006 위의 글, 328쪽.
- 007 김진수 사건은 1971년 3월 18일 스웨터 보세가공업체인 한영섬유의 노동자 김진수가 사측에서 노조 무력화를 위해 고용한 세 명의 종업원들에게 드라이버로 머리를 찢러 60여 일 동안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가 5월 16일 숨을 거둔 사건이었다.
- 008 임종자, 「1970년대 도시산업선교회와 한국노총의 갈등·대립」, 『史林』 35, 2010, 316쪽.
- 009 위의 글, 318쪽; 서아현, 앞의 글, 46쪽.
- 010 장숙경, 『산업선교, 그리고 70년대 노동운동』, 선인, 2013, 293쪽, 298쪽, 306쪽.
- 011 <KBS 인물현대사: 여공, 유신을 몰아내다—YH사건 김경숙>, 2005년 2월 방송.
- 012 전와이에이치노동조합, 『YH노동조합사』, 形成社, 1984, 106쪽, 126쪽, 131쪽, 189쪽; 박영희, 『김경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3, 128쪽; 박태연 녹취록,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소장(자료번호: 123-149), 면담자 오유석, 면담일자 2002년 10월; 최순영 녹취록,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소장(자료번호: 324-37), 면담자 오유석, 면담일자 2002년 8월.
- 013 최순영, 『당신이라는 선물—고 황주석 선생에게 바치는 글』, 해피스토리, 2007, 82쪽.
- 014 도급제는 작업 물품에 단가가 매겨지고, 일정한 노동시간 동안 개인이 작업한 성과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는 체계로, 노동자들의 초과 노동을 유도하고 경쟁을 조장함으로써 저임금을 유지하기 위한 임금체계였다.
- 015 최순영 녹취록,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소장(자료번호: 324-37), 면담자 오유석, 면담일자 2002년 8월.
- 016 배지영, 「가슴에 남은 사람: 최순영 YH노조 지부장—열아홉 노동자에서 지역운동가로」, 『노동사회』 62, 2002, 72쪽.
- 017 이원보, 『한국노동운동사 5』, 지식마당, 2004, 543~544쪽.
- 018 전와이에이치노동조합, 앞의 책, 64, 127쪽; 박태연 녹취록,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소장(자료번호: 123-149), 면담자 오유석, 면담일자 2002년 10월.
- 019 박영희, 『김경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3, 121~122쪽.

- 020 전와이에이치노동조합, 앞의 책, 27~28쪽.
- 021 위의 책, 22~23쪽; 최순영, 『그때 그 자리: 70년대 말 노동운동의 외침—YH 최순영, 『기억과 전망』 3, 2003, 83쪽.
- 022 노조 결성시 서울시 노동위원회는 노조 결성 전에 해고된 4명의 해고자가 가톨릭노동청년회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이들의 복직과 노조 승인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할 것을 요구했다. 전와이에이치노동조합, 앞의 책, 24~26쪽, 54쪽.
- 023 박민나 편, 『가시철망 위의 닝쿨장미—여성 노동운동가 8명의 이야기』, 지식의날개, 2005, 136쪽; 전와이에이치노동조합, 앞의 책, 76~77쪽.
- 024 1976년 상집회의록에서도 ‘지부장이 마음대로 작업장을 시찰할 수 있도록 건의한다’가 노사협의 내용이었다. 박태연 녹취록,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소장(자료번호: 123-149), 면담자 오유석, 면담일자 2002년 10월; 전와이에이치노동조합, 앞의 책, 58쪽, 85~88쪽.
- 025 박태연 녹취록,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소장(자료번호: 123-149), 면담자 오유석, 면담일자 2002년 10월.
- 026 전와이에이치노동조합, 앞의 책, 89쪽.
- 027 박태연 녹취록,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소장(자료번호: 123-149), 면담자 오유석, 면담일자 2002년 10월.
- 028 최순영, 앞의 글, 2003, 154쪽.
- 029 전와이에이치노동조합, 앞의 책, 39쪽; 배지영, 앞의 글, 73쪽.
- 030 장현자, 『그때 우리들은』, 한울사, 2002, 190쪽; 한국기독교교인권위원회, 『1970년대 민주화운동 IV』, 1986, 1526쪽.
- 031 최순영, 앞의 책, 2007, 102쪽.
- 032 최순영 녹취록,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소장(자료번호: 324-37), 면담자 오유석, 면담일자 2002년 8월.
- 033 전와이에이치노동조합, 앞의 책, 89쪽.
- 034 박태연 녹취록,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소장(자료번호: 123-149), 면담자 오유석, 면담일자 2002년 10월.
- 035 전와이에이치노동조합, 앞의 책, 145~146쪽.
- 036 박태연 녹취록,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소장(자료번호: 123-149), 면담자 오유석, 면담일자 2002년 10월.
- 037 전와이에이치노동조합, 앞의 책, 151쪽.
- 038 장현자, 앞의 책, 189쪽.
- 039 전와이에이치노동조합, 앞의 책, 45~46쪽.
- 040 박태연 녹취록,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소장(자료번호: 123-149), 면담자 오유석, 면담일자

자 2002년 10월.

041 전와이에이치노동조합, 앞의 책, 102쪽; 박민나 편, 앞의 책, 137쪽; 박태연 녹취록,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소장(자료번호: 123-149), 면담자 오유석, 면담일자 2002년 10월.

042 전와이에이치노동조합, 앞의 책, 128~130쪽.

043 위의 책, 114~122쪽; 최순영, 앞의 책, 120쪽.

044 박영희, 『김경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3, 39쪽.

045 원풍모방 운영 사례에 대해서는 김원, 『여공 1970, 그녀들의 반역사』, 이매진, 2005, 484~492쪽 참조.

046 박태연 녹취록,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소장(자료번호: 123-149), 면담자 오유석, 면담일자 2002년 10월.

047 최순영 녹취록,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소장(자료번호: 324-37), 면담자 오유석, 면담일자 2002년 8월.

048 전와이에이치노동조합, 앞의 책, 86쪽.

049 위의 책, 112~115쪽.

050 위의 책, 71쪽, 76쪽.

051 위의 책, 105쪽.

052 위의 책, 108~109쪽.

053 위의 책, 122~123쪽.

054 위의 책, 90~91쪽, 154쪽; 최순영, 앞의 책, 119쪽.

055 박영희, 앞의 책, 2003, 127쪽, 134쪽; 전와이에이치노동조합, 앞의 책, 105~107쪽, 131쪽.

056 위의 책, 97쪽.

057 전와이에이치노동조합, 앞의 책, 154쪽.

058 위의 책, 155쪽.

059 위의 책, 177~178쪽.

060 위의 책, 156~157쪽.

061 서아현, 앞의 글, 66쪽.

062 위의 글, 35쪽; 이종옥, 「YH여공 농성 사건」, 『신동아』 1985년 6월호, 511쪽; 전와이에이치노동조합, 앞의 책, 188쪽.

063 김영삼, 『김영삼 회고록 2』, 백산서당, 2000, 116쪽.

064 최순영, 「그때 그자리」, 155쪽.

065 서아현, 앞의 글, 94쪽.

066 전와이에이치노동조합, 앞의 책, 157쪽; 박영희, 앞의 책, 151쪽.

067 전와이에이치노동조합, 앞의 책, 160~162쪽.

068 박영희, 앞의 책, 148쪽.

- 069 전와이에이치노동조합, 앞의 책, 164~165쪽.
- 070 위의 책, 165쪽.
- 071 위의 책, 166~168쪽.
- 072 위의 책, 167쪽.
- 073 위의 책, 157쪽, 164~165, 167쪽.
- 074 위의 책, 161쪽, 177쪽.
- 075 위의 책, 178쪽.
- 076 박영희, 앞의 책, 164쪽.
- 077 전와이에이치노동조합, 앞의 책 183쪽; 박영희, 앞의 책, 149쪽.
- 078 최순영, 앞의 책, 122쪽.
- 079 전와이에이치노동조합, 앞의 책, 179~180쪽; 박태연 녹취록,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소장(자료번호: 123-149), 면담자 오유석, 면담일자 2002년 10월; 배지영, 앞의 글, 74쪽.
- 080 김원, 『여공 1970, 그녀들의 반역사』, 이매진, 2005, 547~549쪽.
- 081 전와이에이치노동조합, 앞의 책, 74쪽, 112쪽.
- 082 명동성당 등 외부 장소에서 농성할 경우 조합원의 분산과 소수화, 고립이 우려되었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쟁을 위해 1차적으로 고려한 장소가 기숙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 083 전와이에이치노동조합, 앞의 책, 156쪽.
- 084 위의 책, 184~186쪽.
- 085 위의 책, 184~187쪽; 최순영, 「그때 그 자리」, 154쪽; 박영희, 앞의 책, 166~168쪽.
- 086 전와이에이치노동조합, 앞의 책, 192쪽.
- 087 위의 책, 192쪽.
- 088 박영희, 앞의 책, 175쪽; 전와이에이치노동조합, 앞의 책, 170~171쪽.
- 089 박영희, 앞의 책, 174쪽; <KBS 인물현대사: 여공, 유신을 몰아내다—YH사건 김경숙>, 2005년 2월 4일 방송.
- 090 전와이에이치노동조합, 앞의 책, 190~194쪽.
- 091 위의 책, 195쪽.
- 092 위의 책, 193쪽.
- 093 박영희, 앞의 책, 173쪽.
- 094 전와이에이치노동조합, 앞의 책 197쪽.
- 095 위의 책, 197~198쪽; 이종옥, 앞의 글, 514쪽.
- 096 박태연 녹취록,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소장(자료번호: 123-149), 면담자 오유석, 면담일자 2002년 10월.
- 097 박영희, 『김경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3, 179쪽.
- 098 위의 책, 178~179쪽.

- 099 박민나 편, 앞의 책, 145쪽.
- 100 전와이에이치노동조합, 앞의 책, 199쪽.
- 101 한국기독교인권위원회, 앞의 책, 1591; 이종옥, 앞의 글, 516쪽.
- 102 『동아일보』 1979.8.11.
- 103 <KBS 인물현대사: 여공, 유신을 몰아내다—YH사건 김경숙>, 2005년 2월 4일 방송.
- 104 이종옥, 앞의 글, 518쪽; 최순영, 앞의 글, 157쪽.
- 105 이종옥, 앞의 글, 524~525쪽.
- 106 『조선일보』 1979.8.12; 김영삼, 앞의 책, 137쪽.
- 107 이종옥, 앞의 글, 528~529쪽.
- 108 『동아일보』 1979.8.11; 『동아일보』 1979.8.13; 배지영, 앞의 글, 75쪽; 전와이에이치노동조합, 앞의 책, 211쪽.
- 109 전와이에이치노동조합, 앞의 책, 208~209쪽.
- 110 최순영, 앞의 책, 127쪽.
- 111 <KBS 인물현대사: 여공, 유신을 몰아내다—YH사건 김경숙>, 2005년 2월 4일 방송.
- 112 전와이에이치노동조합, 앞의 책, 106쪽.
- 113 박영희, 앞의 책, 134쪽.
- 114 <KBS 인물현대사: 여공, 유신을 몰아내다—YH사건 김경숙>, 2005년 2월 4일 방송.
- 115 전와이에이치노동조합, 앞의 책, 136쪽에서 재구성.
- 116 80년대 변혁적 노동운동에 의한 유신 시기 민주노조 운동의 평가에 관해서는 김원, 『여공 1970』, 이매진, 2005, 75~76쪽 참조.
- 117 유화 국면을 즈음해서 노조설립신고서 반려, 부당노동행위, 폭력적 탄압, 대량해고로 노조 결성이 어려워지자 노동운동 진영은 현장 복직투쟁에서 당사, 행정관청, 공공기관 건물을 점거해 문제를 정치화시키고자 했다. 유경순, 앞의 글, 353쪽.
- 118 지부장 최순영은 당시 심경을 “아, 우리는 우리가 목표했던 걸 달성했다. 정말 우리 억울한 것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다. 너무나도 그 기사를 보고 정말 기뻐서 울었어요, 저희들은”이라고 기억한다. <KBS 인물현대사: 여공, 유신을 몰아내다—YH사건 김경숙>, 2005년 2월 4일 방송.

condemned the Christian Academy Case as an act of suppressing labor and peasant movements and violating the freedom of Christian missionary work, and accused it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religious oppression” through the international religious network. World church organizations and religious leaders were interested in the process of Korea’s trial of the Christian Academy Case and engaged in support and solidarity activities. They also sent messages of pressure to the presidential office of South Korea, the White House of the U.S. and the U.S. Congress to correct their unfair treatment of the case. One of the key targets of the Carter administration’s “human rights diplomacy” was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and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s oppressions on religious and social organizations, including the Christian Academy case, has intensified pressure on the U.S. to take measures to protect “human rights” against South Korea. The Christian Academy Case, the operation of the international network over the “human rights” issue,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U.S. foreign policy on human rights have contributed to the collapse of the Yushin regime.

Keywords: Christian Academy; Human Rights; Democracy; Torture; International Christian Network.

● The Choice of Her in 1979: YH Labor Union’s Occupation of Headquarters of New Democratic Party

Kim Won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union’s unique behavior before occupation of headquarters of New Democratic Party and the situation of union members who chose the occupation to protect the democratic labor unions. “YH accident based on union members from the bottom” has created autonomous space from the government and employer through self-governing of dormitory and various small group activities. By trial and error of labor union’s leadership, the members could expand their understanding of the democratic labor union through self-correction and meeting and union gathering. Although not highly political consciousness, they did not want to return the situation before formation of labor union. Finally, the union members struggled with patience and developed a “legal struggle” including sit-in, labor condition survey, appeals. What should be noted in the YH labor union activities was that it operated a labor union that allowed many union members to participate in autonomously without forces such as the Urban Industrial Mission Church.

The occupation of YH female workers was difficult to explain only with the political incident that inspired the collapse of Yushin regime. After Gwangju uprising in 1980, revolutionary labor force criticized the democratic movement in 1970s as economicism and trade unionism. However, unlike the sit-down protest in 1980s that ended in failure without union members, YH female workers chose occupation of headquarters of New Democratic Party in fear of being driven away and forced to be suppressed by the police.

Through many members abandoned normalization of company, process of preparing for long-term struggle was possible due to the participation of members based on systematic preparation and ongoing legal struggle. The union members made up a team and prepared medicines, equipment, placards for protest. This process was to unite labor union and its members. It can be inferred from the memory of the August 10 closing assembly that over 80% of the members wanted to protect for democratic labor union. The closing assembly was not just a space of fear. The labor union members talked about the American labor movement, self-burning of Chun Tae-il, struggle of Dong-il Textile Manufacturing, and human life. The reason they chose to protect the value of the democratic labor union was wrath of slavery treatment for many years, the shame when abandoning struggle and the bad labor laws over all years. It was wish that wanted to live as a human being who had alarmed society. What has to be reassessed through the occupation of headquarters of New Democratic Party is a woman's choice despite unimaginable fear and panic. A photograph of the female workers who gathered and smiled after seeing the sitting scene of headquarters of New Democratic Party published in the newspaper was shining constellation that must be recorded in the history of the labor movement.

Keywords: YH Labor Union; Occupation of Headquarters of New Democratic Party; Democratic Labor Union; Labor Movement; Female Worker; Yushin regime; Legal Struggle; Christian Academy.

● Turnover in University Enrollment Quota Policy in the Late 1970s and Popularization of Higher Education

Oh, je-yeon

The Korean higher education began to drastically expand since the late 1970s. In particular, the university enrollment quota increased to about 50,000 at a time in 1970, and in turn, increased to more than 100,000 in 1981, as the '7·30 Actions for Educational Reformation'